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1월 8일 (제1070 호)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경고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대구교회 성도 모두가 전수조사를 받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나 역시 보고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대구교인들은 질병관리청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에 일파만파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단의 전 교역자와 성도들은 기도로 이들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후약방문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곧 점검 아닌가. 점검부재현상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아 낭패를 당하기 쉽다. 이 일로 밤을 지새우며 ‘경고’라는 글을 적어보았다.

여보게, 친구!

어느 나팔수 소리나 들어보게나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가 누군가 좀 생각해보세

경고를 무시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한 해 농사지은 것 다 망가졌다
땅을 치며 우는 농부여 아낙네여
천둥번개 치듯 경고할 때
자네는 뭘 하고 놀았나 생각이나 해보게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엇하겠나
떠난 남 부른다 돌아올손가
매사 불어튼튼 점검하라
나팔 불 때 자네는 어디 가서 놀았나?
투전판 갔었나?
기생집에 있었나?
때늦은 후회는 가슴앓이 병만 키운다네
이제라도 깨닫고 불이 꺼진 다음에
기름 붓지 말고
미리미리 기름 준비하는 것 잊지 말게
“유비무환”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네
이는 확실한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이지
이후론 탓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내시길
기도하겠네

2020. 10. 31 봉우 이초석 목사

위기가 올 때 믿음이 측정된다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목사님은 “너는 내 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라는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마치 예언처럼 언급하셨다. 지난 주말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건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있는 일이라 여겼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지 뉘 알았겠나. 그러나 어떠한 위기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목사님은 강조하셨다.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는지 여쭙봤더니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사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언기도가 그 표적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약속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암을 두려워하고,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까? 권력과 재력과 지력 있는 자를

하고, 귀신을 투입하여 병과 가난으로 이끌고, 낙담, 좌절케 하는 놈입니다. 현실을 탓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요14:1).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마6:27).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6:34).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는



목사님의 세계선교사역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이지리아 집회 광경)

“사람들은 조석으로 변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일삼고, 오랜 관계마저 내쳐버리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자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쳐주는 분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위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값진 시간입니다.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자신의 독생자까지 죽여서 우리 죄를 사하고 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를 걸어 왔습니다. 나 혼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밤에라도 그 영혼을 거둬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은 다음에도 영생복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 삶이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업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적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잠24:10)이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위기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위기의 터널을 넉넉히 통과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벧전5:7~11)



경험은 확실한 성공의 열쇠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이것은 제가 유언처럼 기도원 벽에 새겨 둔 말입니다.

목회 36년, 저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아예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답이고, 해법이고, 길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을 때도, 교계에서 핍박이 오고 교단에서 제명되었을 때에도, 사지가 마비되고 눈이 터졌을 때도 제가 한 일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 앞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쓴물 앞에서, 적들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저도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제 길을 인도하셨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신 것처럼 제가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명성을 높이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롬8:28),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갈6:17).

수천 볼트 전기나 수만 볼트 전기나 스위치 하나로 작동되듯 문제가 크건 작건 기도면 다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에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제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야죠.

반드시 역전되리라 반드시 반전되리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왜 알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앞의 태산 같은 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병에서 놓임을 받게 하려고 채찍에 찔리셨는데(사53:5), 또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시려고 말구유에 나셨는데(고후8:9),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병과 가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병과 저주

와 가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당하고 사는지 정말 답답해서 가슴을 찢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기름이 없고 배터리가 없으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하늘을 날 수도, 달릴 수도,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다 닦아놓았어도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달릴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죄에서, 가난에서, 병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어두움이 바로 들이닥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어두움의 주관자가 바로 침입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놈들이 누구니까?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입니다(마8:16). 그 놈들은 잠시만 불이 꺼져도 열썩구나 하고 바로 들어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합니다. 그러니 불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벧전5:8~9)고 경고하며 늘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라’고 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살전5:17).

마귀와 귀신들은 성령 충만할 때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한 자에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주셔서 내보심은(마10:1) 그래야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만 없으면 살 것 같겠지요? 귀신만 없으면 우리는 천국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에덴에서 처럼 천국생활하기를 원하셔서

서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요일3:8).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귀신을 쫓으셨습니다(눅13:32).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을 억압하고 내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가능합니다. 이 예수 이름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외관으로는 똑같은 총을 가지고 있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총알이 장전된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총알이 없는 빈총을 들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총알이 없는 총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에 앉아있는 건 아닌지, 내가 배터리가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총알이 없는 빈총을 들고 품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귀신의 밤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얼른 불을 밝히고,

얼른 총알을 장전해야 합니다. 얼른 총전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대구교회 코로나 사태에 대해 우리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염려를 맡깁시다. 기도해놓고 내가 계속 염려를 끼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까요. 이 일을 당한 자들이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5:7).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의 간구를 외면하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마7:9~10).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이 일로 인해 낙담하면 마귀만 틈잡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잠24:10).

기도만이 인생의 답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와 같은 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쥐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물고기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한없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샘은 깊이 관 샘이요, 빛이 있으면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물을 팔팔 끓이면 군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당신을 무시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귀신을 쫓으십시오. 총알이 장전된 총은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 빗땀지를 잡듯,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그것들은 반드시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더 큰 그림을 그려라

월가의 영웅이라 불리는 피터 린치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주식/펀드투자법에 관한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취미 삼아 돈을 벌 수 있는 주식투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식투자의 성공비결은 신념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신념을 잃지 않는 것과 주식투자는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최고의 전문가라 해도 신념이 없다면 부정적인 뉴스를 무시하고 주식을 살 수 없고, 최고로 좋은 펀드를 골라 투자한다 해도 신념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최고조에 달할 때, 그래서 주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때 펀드를 환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닥친 위기는 항상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시장에서 악재를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악재가 두려워 시장에서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투자 시점을 연구하여 주가가 오를 것이라 확신이 들 때 시장에 들어갔다가 전망이 불확실해지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경제와 시장 상황에 무심한 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립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식에 대한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현재 그려진 큰 그림에 의심이나 절망감이 생길 때마다 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신념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면 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이 세상이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는 비관론의 증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채권에 비해 두 배 더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작은 정보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수많은 투자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선사할 것입니다.

사실 대폭락 후유증 때문에 주식을 기피했다면 그 대가가 너무 큼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자산 가치를 감소시킵니다.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며 일상적인 일일 뿐입니다. 주식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가 하락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하며, 좋아하던 주식이 떨어지면 저가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기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 중에 고난을 만나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고난 뒤에 있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경 권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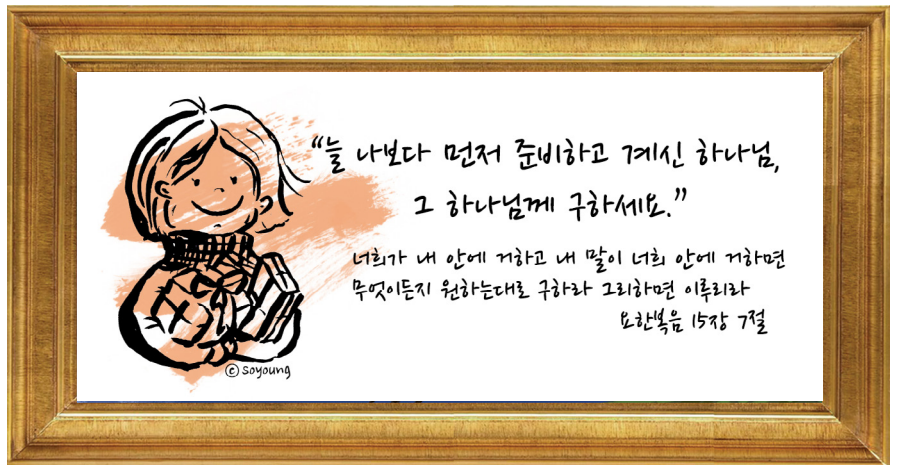
지난 폭우로 교통통제가 되던 날, 인터넷 새벽기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통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도로 교통상황을 찾아봤습니다. 지도상에 모든 도로가 빨간색으로 가득했습니다. 뿔뿔한 수가 없어 항상 다니던 길로 가기로 했는데 평소대로라면 안 막힐 때 30분, 막혀도 1시간이면 가는 길을 돌고 돌아서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음 날, 교통통제로 인해 4시간이 걸렸던 경험을 통해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는데 원래 가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알려줬습니다. 어차피 원래 가던 곳은 교통통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지라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크게 돌아가 거리는 멀어졌지만 막히지 않아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경험을 통해 때로는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잠16:9)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같이 항상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수없이 들었지만,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가장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은성
es2563@naver.com



아브람과 아브라함 (창세기 17:1~6)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니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고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의(義)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이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셨고 (요6:38), 성령도 하나님의 의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그 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하심이니라”(롬8:27).

하나님의 명령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므로 순종하면 영생이요(요12:50), 거부하면 심판이 따름으로 두렵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존심이므로 그 무엇도 그 의를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그 의에 이르는 첩경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세상에 알려주시며, 사람이 그 뜻을 믿고 순종하여 의에 이르고 그 의를 공유하게 되는 길과 진리를 제시한다. 예수는 길과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보통사람인 아브람에게 본

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고 아브람은 순종했다. 아브람은 임의로 살던 삶의 혈통과 인연을 끊고 본토를 떠나 이 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그네가 되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최초의 히브리인이 되었다(창14:13, 히11:13~16).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아브람이 마음에 합하여 항상 그림고, 사권이 있고, 거짓이 없는 친구라 기뻐하셨고, 그의 믿음을 의의 기준으로 정하셨다.

의는 하나님도 초월하지 않는 절대기존인데, 예수와 성령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접하는 사람이 순간에 깨닫기도 하지만 암만 배워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음악 지원생에게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케 함으로써 선천적 음감을 테스트 하듯, 신자에게 절대영감이 필요하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감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심령을 씻어 거룩케 한 후 거기에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롬8:14~16). 이렇게 성령이 보증하시는 믿음이 절대영감이다. 그러나 교리적 신념(信念)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포기하고 무시한다.

아브람은 부르심에 순종하였으므로(창12:1~2)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고(창15:6), 이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명하셨으니 이 이름은 그와 맺은 첫 언약이다(창17:1~6). 아브라함 백세에 독자를 낳았고 그 씨에서 마침내 마귀를 멸할 왕이 나실 것을 약속하셨음이다(창17:16). 이렇게 인자의 노정은 술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신다(창15:13~14).

아브람은 보통의 아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이다(창17:5). 아브람에게는 생물학적인 유전자만 가진 혈통의 자손이 나온다. 히브리인 중에도 이런 생물학적인 유전자만을 가진 자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도 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은 왕이요 다윗을 통하여 의의 길을 마련하셨고(시23:3), 그 길을 타고 예수 그리스

도가 오시는데 예수는 이 땅에 나타나신 최초의 의이시다(요16:10).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상관없으나 영적 유전자는 하나이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는 의인이 없는데, 의로 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영적인 유전자가 동일한 것이다.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은(요8:56),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그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충족됨이다(요6:53~57).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의 규격품으로 만드셨고, 예수는 그 길로 오셨고, 우리는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 의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의의 길에 들어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이르므로 그 행사가 형통하다(시1:1~6). 혹 많은 기도가 있다 해도 죄인의 길, 자신의 신념으로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포기하여 신앙을 보시게 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절대영감을 가지자.

박덕규 목사

어머니의 기도

새벽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 살아계실 때 더 열심히 효도하며 모시지 못함이 후회가 된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6남매를 키우셨던 우리 어머니. 밤새 나가서 명태 배를 가르고 명태 속에 있는 창탄과 끈지를 가지고 와서 밤새 손질을 하셨다. 나는 철었던 어린 시절 이리저리 뛰 어다니며 주는 밥 잘 먹었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머니는 삼시 세끼 밥을 차려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어릴 때 제사를 지냈던 우리 가정에 큰 누나와 작은 누나 두 분이 먼저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왕복 20km를 걸어서 교회에 나가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다. 그 누나들이 있었기에 나도 덩달아 교회에 나갔다. 우상을 섬기던 어머니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시더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던지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예배에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날 성령을 받으셨는지 방언기도를 하시는데, 새벽이면 울면서 자식들을 위해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로 기도를 하셨던 어머니. 몇 시간을 기도하시던 그때 그 모습이 떠올라 목사가 된 지금 새벽 시간이면 어김없이 성전에 나가 기도하게 된다.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지금 목사가 된 나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과 어머니께 감사를 드린다. 어머니께서 집사 직분을 받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헌신하시더니 아버지를 전도하여 아버지는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등에 벽돌을 짊어지고 헌신하셨다. 아버지도 천국에 가셨고 어머니도 권사 직분을 받고 9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는 모든 형제들이 어머니가 계신 받아들이는 목사 집으로 와서 얼굴도 보고 만나 형제 우애를 나누었던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형제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때가 그

리워진다. 먹고 살기가 힘든 것도 아닌데 서로 왕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어 깊이 생각해본다.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보니 어머니 살아 계실 때가 최고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는 가정이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나이가 드니 깨달아지는 진실이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우리 어머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이다. 늘 옆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유산을 아들인 나에게 물려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새벽에 나가 나라와 교단과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자식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한 것은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효도하며 사는 것이 큰 축복임을 깨달으면서 몇 자 적어 봤다.

아산예수중심교회 박인덕 목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크리스천이라 술을 안 마십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전입 환영 회식에서 새파랗게 어린 소위가 군 경력 20년 이상 차이나는 부대장님의 술잔을 거절했으니 선배 장교들이 저를 쏘아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잔을 받으면 선배 장교들의 술잔도 다 받아야 합니다. 실제 술을 마셔본 적이 없기도 했지만 한번 술을 입에 대면 거절하기도 힘들 테고, 술을 절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결국 술에 취하게 되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꼭 크리스천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었습니다. 부대장님은 바로 온화한 미소를 띠며, “너 참 대단하구나. 나도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지 술을 못 끊고 있다.” 되레 칭찬을 하며 음료를 따라주셨습니다. 회식이 있기 전 부대장님과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시인했고,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너그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덕분에 ‘정 소위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고, 특히 회식 때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 오히려 모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진 만큼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

을 더욱 조심하고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고생스럽더라도 남들이 기피하는 일까지 맡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후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직속상관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난밤 꿈에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전입 회식 때 너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울림이 있었고, 너를 내 부하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인 것 같다.’면서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돌연 고백을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 선배 장교는 제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성경의 내용에 대해 먼저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귀찮았는데, 너와 같은 방을 쓰게 된 것이 참 신기하다.’면서 스스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결국 그의 연인의 기도가 저를 통해 응답되었고, 그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먼저 전역한 선배 장교였는데, 본인이 절대 교회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한 후 미국에서 살게 되었고, 한인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날 저녁에 간증을 하게 되었다.’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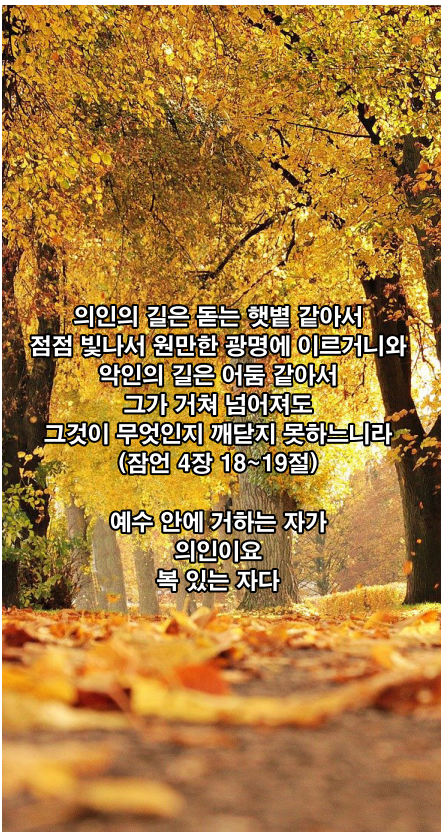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크리스천에게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단지 크리스천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뿐인데, 먼저 예수님을 전하기도 전에 그분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처음 왕의 교육기관에 들어갈 때부터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본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조서를 내리기까지 합니다(단1:1~21, 단3:1~30, 단6:1~28).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명관
v-777@naver.com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자

매사에 철저한 준비 없이는 일을 잘 완수하기가 어렵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놋과 철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예수님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위해 다락방을 미리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후 복음 전파를 위해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셨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이다.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예컨대, 사후 준비가 중요한 만큼 건강관리나 노후 준비도 필수적이다. 영이 가장 중요하니 영성을 먼저 챙기지만 사실 영·혼·육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들의 조화를 잘 이뤄내며 각각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 강건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건강을 통해 더 넉넉한 영성을 이뤄낼 수 있다. 몇 년 전 데이터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이다. 안타깝게도 노인 자살률도 1위이다.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이렇듯 노후의 삶도 미리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잘 감당해낼 재간이 없다. 한번 크게 아파보니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다. 아프니 그 어떤 즐거움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식도락도, 자연의 아름다움도, 즐거운 취미도 모두 그렇게 부질이 없을 수 없다.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고, 넉넉한 노후의 삶을 살기도 어렵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서 영·혼·육이 두루 건강한 능력 있고 강건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힘쓰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의인의 길은 돌은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처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8~19절)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의인이요
복 있는 자다